지역명품을 세계명품으로

창사 57주년 광주일보 캠페인

세계가 인정한 '복분자 웰빙와인'

⑫ 함평천지영농조합 '레드 마운틴'

매년 20~40% 매출 신장
재배농가도 10배 이상 늘어
광주비엔날레 공식 와인 선정

27일 오후 광주시 서구 화정동 함평천지복분자영농조합법인 광주직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이 '레드 마운틴'을 시음해보고 있다.

복분자 와인 '레드마운틴'이 주류업계 '골리앗'을 제치고 복분자주 시장에서 웰빙와인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함평군 농민들이 중심이 돼 소득작물로 재배한 복분자의 판로개척을 위해 2004년 '함평천지복분자영농조합'을 결성하고 복분자 와인을 만들기 시작한 지 5년만의 일이다.

초창기인 2007년까지는 매출액이 매년 40%씩 급증하는 등 고도 성장을 구가했다. 불황이 시작된 지난해부터는 증가폭이 20~25% 수준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올해 목표 매출액만 30억원을 내다볼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전남도가 주관한 제1회 남도 전통명주 선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2008 광주비엔날레 공식 와인으로 선정되는 등 이름값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3월에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 일본 수출길에 오르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레드마운틴'이 함평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넘어 국내 복분자 와인 시장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엄선된 원료를 사용한 데 있다.

일조량이 풍부하고 토양의 유기물 농도가 높은 함평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복분자와 지하 250m에서 뽑아 올린 청정수를 원료수로 사용하고 있다.

또 장기간 숙성효과를 내기 위해 3천만원대의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을 숙성실에 설치해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며 원료를 발효하고 있다. 그 결과 기존의 복분자주보다 덜 달고 맛과 향이 깊어 유럽산 와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철저한 품질 관리 덕분에 지난 2007년에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식품가공분야에서 산업포장도 수상했다.

함평천지복분자영농조합은 함평군 신광면 삼덕리에 있는 생산공장에 채수·정화·발효탱크·여과·브렌딩 등 각종 시설을 갖추고 클래식(13도·750㎖), 스페셜(19도·700㎖), 스위트 타입(15도·375㎖) 등 다양한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또 복분자차, 복분자생과 등 복분자 연관 상품까지 개발하면서 지역농가 수익에도 보탬을 주고 있다. 참여 농가 수도 30 농가에 불과했던 것이 지금은 300 농가로 10배나 늘었으며 재배면적도 0.49ha에서 200여ha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농가가 함평천지복분자영농조합을 통해 거둬들인 수익만도 8억원이 넘었다.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위해 자체 판매망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004년에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 직매장을 연데 이어 오는 9월에는 서울지역에 직매장을 낼 계획이다.

함평천지복분자영농조합 조병준 대표는 "농가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재배 농가에 희망을 주고 5년내 매출액을 100억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시장을 벗어나 이제는 해외시장 개척에도 힘을 쏟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실손의보 보장한도 축소 논란

본인 부담금 10% 늘린데 이어 50% 감축 추진

오는 10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 10%가 신설된 가운데 보험금 지급 한도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의 입원 의료비 지급액을 현행 최고 1억원에서 최고 5천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통원 치료 때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의 보험금 지급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의 계약 갱신 주기는 3년이나 5년 등으로 특정하지 않고 보험료율도 보험사 자율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의 과당 경쟁과 소비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문제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 한도가 낮아지면 보험료도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비 보장 한도를 5천만원으로 낮추면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보장 한도의 급격한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보장 한도 축소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보험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10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입원할 때 연간 본인 부담금의 10%(최고 200만원)는 개인 돈으로 내도록 결정했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가입자 부담금의 100%(생명보험사는 8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내달 시중은행 점검
한은·금감원 공동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을 상대로 그동안 취해 온 금융·통화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공동검사를 벌인다.

27일 금융·통화당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조만간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에 대해 통화신용정책의 파급 상황을 점검하는 검사를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은 측의 요구에 따라 다음 달 중순께 공동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검사에서 두 기관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현황 ▲시중은행의 자금중개 실태 ▲중소기업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현황 ▲시중 유동성의 단기부동화 현황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관계자는 "통상적인 수준의 검사로 연초부터 일정이 잡혀 있었던 것"이라며 "최근 일각에서 거론되는 '출구전략'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신보 보증 '명당 1호점' 탄생

광산구 '만나손 해물칼국수' 선정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자체 인증제도인 '신용보증해드림 명당(明堂)' 제도를 도입하고 1호점을 선정했다.

광주신보는 27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만나손 해물칼국수'를 신용보증해드림 명당 1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사진〉

신용보증해드림 명당은 전국 16개 자치단체가 출연한 신용보증재단 가운데 처음 도입한 인증제도로, 보증 우수업체 가운데 성장 잠재력 등이 뛰어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광주신보는 선정 업체에게 보증료 인하 등 각종 보증 혜택과 함께 신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해주고 있다. 김재욱 광주신보 이사장은 "일종의 보증 애프터서비스 제도"라며 "앞으로도 '명당' 대상자를 더 넓혀 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